

I .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3. 연구방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인터넷의 보급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정보와 지식, 그리고 편의이외에도 게임과 같은 놀이,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과, 대화, 만남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현실에서 소외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역기능의 하나로 사이버공간상에 청소년들의 문제 행동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확산으로 사이버공간상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문제, 일탈행동에 대한 실태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 중 다른 여러 유형보다도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욕설, 비방, 심지어 위협에 이르는 언어폭력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에서는 현실에서 규정된 사회적 지위나 성, 인종에서 벗어나 차별이나 제약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다. 더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텍스트만이 제공되기 때문에 면대면 상황에서보다는 더욱 자유롭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이 지니는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의 보장이 게시판, 채팅, 이메일 공간에서 비이성적이고 즉흥적으로 아무 글이나 띄우는 것을 조장할 수 있고, 또 인신공격, 욕설, 비방 등을 일삼게 한다는 우려가 높다.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흔히들 그 원인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때문이라고 언급되어진다. 많은 문헌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문제행동은 익명성 때문이라고 주장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이 과연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사이버공간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범죄와 문제행동들이 익명성에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실명제를 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익명성에 원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익명의 공간은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더군다나 그 원인이 익명성이외에 다른 데에 있다면 다른 대책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외에 다른 가능한 원인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2. 연구내용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의 원인이 되는가? 최근 이에 대한 관심이 국외는 물론 국내 연구에서도 있어 왔다 (Lea et al., 1992; Thompsen, 1996; 김봉섭, 1998; 김경원, 2000; 박인우, 김미향, 2000; 최영, 이종민, 김병철, 2002; 이철선, 2003).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최근까지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익명의 상황을 그 원인으로 다루

려고 하며, 그렇다면 익명의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기존 이론과 논의들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익명상황의 영향에 관한 여러 다양한 입장을 통해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제시하기로 한다.

그러나 사이버 언어폭력은 익명성 이외에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다른 여러 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오프라인상의 폭력비행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가정환경요인이나 충동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함에 있어 익명성과 다른 주요 원인들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고, 이를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해보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의 정의와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다루려고 한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의 일반적인 특성과 익명성, 그리고 익명의 상황이 왜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몰개성화이론이나 사회적 실재감이론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익명성이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 이론적 틀에서 살펴봄으로써 익명성 이외에 다른 요인들을 도출할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이론적 논의 후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사이버공간에 있어서의 언어폭력에 대한 익명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의 경험적 검증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남녀 중, 고등학생으로 한다. 중학교 6개 학교와 고등학교 6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12

개 학교에서는 각각 1,2,3학년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한 학급당 30여명씩 총 1113명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자료는 2003년 6월에 2주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II .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언어폭력의 정의
2.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익명성
3.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언어폭력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
4. 폭력에 대한 기존 비행연구에서의
이론

II. 이론적 배경

1. 사이버 언어폭력의 정의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게시판이나 대화방, 채팅, 이메일 등에서 대화 내용 중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비방, 허위정보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사이버 언어폭력은 일명 플레이밍이라고도 한다. 플레이밍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사전적으로는 무관심한 주제에 비웃고, 실랄하게 격렬하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Steel et al., 1983), 통상 욕설, 인신공격과 같은 무례하고, 격렬한 적대감의 표출을 뜻한다(Lea et al., 1992; 이철선, 2003).

사이버 언어폭력은 통상 해킹, 바이러스 유포나 개인정보침해, 스팸 메일 유포, 사이버도박이나 사기 등 소위 주요 사이버범죄에는 포함되지 않고 음란물예의 접촉과 함께 부적절한 문제행동에 포함되어 논의되고 있어(천정웅, 2000),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것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언어폭력에 한해 그렇다.

사이버범죄는 다양하게 분류되지만 해킹,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침해, 스팸메일 유포, 전자상거래상 사기, 사이버도박, 사이버절도, 저작권침해, 그리고 사이버성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언어폭력 등이 대표적인 범죄로 포함된다. 그리고 크게는 신종 테러형범죄(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전통적인 범죄이지만 사이버공간을 빌어 일어나는 재산범죄(사기나 절도), 그리고 전통범죄이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성폭력이나 명예훼손)로 나뉘질 수도 있다.

여기서 언어폭력이라고 할 때에는 위의 큰 분류 중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범죄에 해당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상대방에 대한 단순한 욕설과 비속어의 사용이외에, 둘째, 허위정보나 유

언비어 유포, 명예훼손 행위, 그리고 셋째, 음란한 대화나 글을 올리는 성희롱 등 세 가지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 즉 우리가 흔히 사이버 언어폭력이라 할 때에는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첫 번째 유형인 욕설과 비속어의 적대감 표출만을 다룬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볼 때에는 흔히 넓은 의미에서의 사이버폭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두 번째 유형인 허위정보 유포나 사이버명예훼손(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유포, 혹은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 ,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인 사이버 성폭력(특별히 음란대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희롱)도 포함하여 다뤄질 수 있다. 따라서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몰라도 넓은 의미로 보면 단순히 문제행동으로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동임을 알 수 있다.

2.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익명성

사이버공간은 현실과 달리 물질적 육체가 존재하지 않고 글, 문자만이 존재하는 탈육체의 텍스트만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아울러 공중과 일반매체와는 달리 정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보를 능동적으로 전달하여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적 공간이 된다. 또한 시공간을 초월하는 탈시공간적 공간이기도 하다.이러한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사이버공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자유의 공간

사이버공간에서는 대면적 상황처럼 물질적인 육체가 존재하지 않고 텍스트와 이미지만이 존재한다. 그러한 특성은 사회지위가 작용하

는 현실과 달리 현실의 구속, 억압으로부터 탈피하여 자유롭게 만든다. 즉 사이버공간의 참여자는 성, 연령, 계층, 인종, 지위 등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으며, 평소에는 못했던 발언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의견과 동작을 마음껏 자유롭게 펼칠 수가 있다.

2) 탈규범의 공간

그러한 점에서 사이버공간은 자유의 공간이고 탈규범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사회의 위치에 따른 역할과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은 현실을 뛰어넘는 초월적이면서, 또 사회규범으로부터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공간이 된다.

3) 수평의 공간

사이버공간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을 나타내는 사회적 맥락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상대의 영향력의 작용이 적어진다. 즉 사이버공간은 탈지위의 수평의 공간이며, 사람들의 관계는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는 평등의 관계에 놓여 있다. 사이버공간이 젊은 청소년들에게 각광을 받게 되는 것도 청소년들이 나이에 구속됨이 없이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점에서 여성, 그 밖의 사회약자들에게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4) 상호작용의 장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게 됨으로써 수줍은 사람도

인간관계를 형성,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대인관계의 장이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평소 알지 못하던 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인종, 지역, 계층을 초월하여 유사한 관심중심의 모임체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고 마음의 위안을 바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5) 익명의 공간

사이버공간은 상대방의 신원과 자신의 신분, 지위가 노출되는 대면적 상황과 달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군인지도 숨길 수 있는 익명적인 특성이 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물론 실명으로 개인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주로 아이디나 아바타와 같은 것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익명적 특성으로 자신을 감추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

6) 자기표현의 공간

사이버공간은 익명, 그리고 탈지위적인 요소로 자신을 진실되게 표현, 노출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또한 그럼으로써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마음의 위안을 받으며,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7) 무절제 비방의 공간

그러나 익명의 상황에서는 서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의 존재를 덜 느끼고, 남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며, 충동

적으로 거침없이 행동하는 탈억제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공간에서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무절제하게 상대를 비방하는 경향이 높게 된다.

3.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언어폭력의 관계에 관한 주요 이론들

사이버공간의 익명상황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입장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있다. 그러나 그 입장을 부정하는 입장도 있다. 여기서는 이들의 주장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몰개성화이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은 게시판, 채팅 등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고 인식공격을 하는 등의 언어폭력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주장되고 있다. 대면의 상황에선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자신의 신체와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성의 상황에선 사이버상의 욕설, 비방, 명예훼손 등의 행동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의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 언어폭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인가?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으로는 몰개성화이론(deindividuation theory)(Zimbardo, 1969; Kiesler, 1984)이 있다.

Le Bon의 군중연구에서 흥분한 군중 속에 파묻혀 있게 되는 경우 자신이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듯이, 익명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사람들은 내적으로 구속됨이 없이

탈억제되고, 심지어 공격적인 언행을 하게 된다고 주장된다.

Zimbardo(1969)가 그러한 몰개성화의 주장을 제시한 이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이 과연 어떠한 이유로 탈억제된 현상을 유발하는지에 연구가 제시되었는데, 예컨대 Prentice-Dunn과 Rogers(1982)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은 ‘공적 자아의식’과 또한 ‘사적 자아의식’의 작용을 감소하게 만듦으로써 몰개성화와 탈억제를 촉진한다고 보았다.

자아의식은 자신, 즉 자신의 외모나 생각 행동에 대해 얼마나 주의할 기울이는가의 정도를 말하는데(Wicklund, 1975), 공적 자아의식은 자신이 남에게 보이는 모습에 신경을 쓰는가를, 그리고 사적 자아의식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에 신경을 쓰는가를 말한다. 즉 공적 자아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그리고 사적 자아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의 감정, 의견에 민감하다고 한다.

익명의 상황에서는 자신의 얼굴은 물론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됨으로 해서 그러한 염려 없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게 될 수 있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는 소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공적 자아의식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책임하고 반규범적인 행동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의 상황에서는 공적 자아의식의 감소와 아울러 사적 자아의식도 감소하게 됨으로 평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내적인 사회금기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사회규범의식이 약화되고, 자신이 평소 생각해 왔던 내적 기준과 달리 자기조절됨이 없이 절제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다. 즉 익명의 상황은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금기와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내적 규제와 감정조절도 어렵게 하여 욕구와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출하게 만들 수 있다(Postmes and Spears, 1998).

2) 사회실재감 및 사회단서 부족 이론

사이버공간에서의 대화는 면대면 대화의 경우와 달리 상대가 텍스트 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실재감이 매우 낮다(Short et al., 1976). 아울러 사이버 상에서는 대화자의 외모, 지위, 그 밖의 비언어적 단서가 부족하다. 특별히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에서는 더 더욱 그렇고, 그러한 이유로 사회실재감이론(social presence theory)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상대를 덜 인지하게 되고, 상대를 덜 친밀하게, 그리고 더 업무적으로 만나게 된다고 본다.

사회적 맥락의 단서가 강한 상황에서는 통상 의사소통의 양식은 타자 중심적이 되고, 자기통제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사회적 맥락의 단서가 제한적일 때에는 특히 익명적일 때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중심적이고, 사회규범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규제되지 않은 행동의 가능성이 높다(Kiesler et al., 1984).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에서는 사회실재감의 부족으로 언어폭력을 할 때 상대가 고통을 받는 모습을 덜 인지하게 됨으로 해서 큰 죄책감없이 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미디어풍부성이론(information richness theory)에서도 주장되듯이 사이버공간에서의 대화는 대면적 단서가 풍부하지 못하고 표현의 제한 때문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잘못 왜곡될 수도 있어 자칫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Daft and Lengel, 1986). 이처럼 사회실재감과 사회단서의 부족을 이유로 사이버공간, 특히 익명의 상황에서는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3) 자아의식이론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은 반드시 반규범적이고 자기조절이 불가능한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익명의 상황에서

는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 자아의식이 모두 낮아질 것이라는 몰개성화 이론과 달리, 공적 자아의식의 경우는 몰라도 비대면 대화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면적 상황에서보다 사적 자아의식이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다(Matheson and Zanna, 1988).

Matheson과 Zanna(1988)은 자아의식이론(two-component self-awareness model)에서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는 수직적이어서 한쪽이 높으면 다른 쪽은 낮아진다고 하면서, 익명의 상황으로 공적 자아의 감소가 일어나면서 사적 자아는 높아진다고 보았는데, 그럼으로 인해 익명의 상황은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내적 소신과 태도대로 행동하게 만들고, 또 자기노출과 자기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4) 사회정체성이론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Effects (SIDE))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은 반규범적 행동을 야기하기보다는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집단의 사회정체성을 활성화시킴으로 해서 집단의 규범에 동조하게 한다는 주장을 한다(Reicher et al., 1995; Postmes et al., 2001). 따라서 이 주장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은 그 사람이 속한 규범의 영향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익명의 상황으로 흔히 자기존재의 정체성을 상실하지만 어떤 사람이 사이버공간 속에서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는 익명의 상황에서 그 집단의 규범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익명의 상황과 집단정체성은 집단규범에 따른 행동에 있어서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고 하는데,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이 실명인 상황에서도보다 집단정체성이 높은 사람이 익명의 상황에서 더 집단의 규범을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 집단에서 보면

익명의 상황은 반규범적 행동보다는 집단동조 등의 행동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5) 억제/합리적 선택이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에서는 심한 명예훼손적 공격을 하더라도 발각의 위험이 낮기 때문에 공식처벌의 두려움이 작용하지 않게 된다. 억제이론가 혹은 합리적 선택이론가들은 사람들의 행동이 처벌의 정도, 특히 얼마나 발각이 되는지의 확실성의 정도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는데(Gibbs, 1975; Tittle, 1980), 이 입장에 근거한다면 익명의 상황에서는 실명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따라서 발각과 처벌의 가능성이 낮아 자신의 반규범적 행동을 큰 두려움 없이 표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익명의 상황의 경우 자신의 언행에 대한 상대방부터 물리적 보복이 없다는 사실이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야기할 수도 있다. 폭력의 경우는 상대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폭력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보면 상대의 힘이 커서 반격이 우려될 때 손실의 작용으로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을 망설이게 된다. 그렇지만 상대가 신체적으로 작거나 물리적 보복의 우려가 없을 때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Felson, 1996). 사이버공간은 상대와 면대면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높은데, 특히 익명의 상황에서는 물리적 손해나 보복의 위험이 더 적다는 점에서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더욱 높을 것이다.

6) 사회적 영향이론

공격적인 언어폭력은 반드시 익명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

라 그때그때의 상황적 맥락의 특정한 규범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있다(Lea et al., 1992; Postmes and Spears, 1998). 예컨대 서로 비난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명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비난에 비난과 폭언으로 대응하게 되며, 또 반대로 비난과 공격이 없는 대화의 분위기의 장에서는 자신이 익명의 상황에 처한다고 해도 언어폭력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즉 익명성보다는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사이트의 성격과 상황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Fulk와 동료들의(1990) 사회적 영향모델(social influence model)에서는 사회적 실재감이론이나 미디어풍부성이론의 사이버공간의 익명 상황과 같은 기술적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사회환경의 영향력, 그리고 그에 대한 개인의 해석을 강조했는데, 예컨대 사이버공간, 혹은 집단의 규범이나 모방학습 등의 요인을 강조했다(Thompson, 1996). 이 입장에서 본다면 토론과정에서의 규범이나 문화가 공격적이거나 비난 일색일 때 그러한 규범을 관찰, 학습하고, 그 영향으로 그것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언어폭력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4. 폭력에 대한 기존 비행연구에서의 이론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이 일종의 비행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이라는 요인이외에 전통적인 주요 비행이론에서 강조되어 왔던 요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주요 이론들에서는 청소년들이 자라온 사회환경 요인이나 개인성향 등의 요인들을 강조하여 왔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이러한 요인들과 연관지워 논의한 연구는 그동안 없었지만 여기서는 그 요인들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

욕설, 비방, 언어폭력을 일종의 공격행위이면서 폭력적인 행동이라고 본다면, 그동안의 이론 중에서 폭력을 설명하는 데 가장 각광을 받아온 하위문화이론이나 차별접촉/사회학습이론의 논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론들에서는 폭력을 용인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환경에 있게 되는 아이들이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학습하여 그것이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여러 환경 중 가정환경은 중요한 환경이 되어, 부모로부터 체벌과 폭력, 그리고 강압적인 양육을 받아온 아이들은 강압적인 폭력방식을 학습한다고 주장되어 왔다(Patterson, 1982). 그러한 환경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학습한대로 대인갈등의 상황에서 문제상황을 폭력과 강압적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더욱 저지르게 된다고 보아왔다(Widom, 1989; Heimer, 1997).

폭력의 학습은 가정외에 폭력적인 학교환경으로부터도 학습 가능하며(Felson et al., 1994), 또한 비행친구와 접촉할 경우 폭력을 더욱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접촉이론에서는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폭력을 포함한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다루어 왔는데, 비행친구와 만날수록 그만큼 친비행가치나 폭력용인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그것을 내면화하면서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보아왔다(Matsueda, 1982; 이성식, 1998). 특별히 사소한 지위비행보다 폭력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비행은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중요하다고 주장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은 그것이 크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상황과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을 하지는 않

을 것이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폭력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평소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를 갖고 그럼으로써 사이버상의 언어폭력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 행동을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사회유대이론

한편 또 다른 주요 이론으로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에서는 청소년들의 사회유대, 예컨대 부모와 청소년들간의 애정관계가 비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사회유대이론에서는 차별접촉이론에서처럼 비행을 초발하고 유인하는 요인보다는 비행을 통제할 수 있는 부모와의 유대관계 등의 통제요소를 강조해왔다.

즉 청소년들은 언제 어느 우연한 상황에서 장난이나 호기심, 혹은 상대에 대응하는 가운데 비행이나 폭력을 저지르게 되는 상황은 많겠지만 부모와 유대가 강한 아이들은 그러한 경우에서도 쉽게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것은 자신이 폭력 등의 행동을 저지를 경우 자신과 유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가 크게 실망하거나 그럼으로써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가 크게 손상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즉 부모와의 강한 유대는 비행의 동기를 통제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 부모의 애정이 부족하고, 또 부모에 대해 애착이 낮은 아이들은 폭력을 포함한 비행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Cernkovich and Giordano, 1987). 그것은 그들은 이미 유대가 깨져 폭력 등의 비행을 하더라도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회유대이론에서는 부모와의 유대뿐만이 아니라 선생님과 유대나 또한 학교공부와의 관여, 투자의 정도도 그러한 이유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사이버 언어폭력도 부모와의 유대 등 사회유대와 통제가 약화된 아이들에게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3) 일반이론(자기통제이론)

또 한편으로 Gottfredson과 Hirschi(1990)가 제시하고 있는 일반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안정된 성향으로서 낮은 자기통제력이 비행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일반이론에서는 모든 일탈이나 비행은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된다고 주장한다. 일반이론에서는 대부분의 비행이 개인의 순간만족, 쾌락을 위해 충동적이고 사려 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면서, 결국 비행의 원인도 이러한 비행발생의 특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Gottfredson 과 Hirschi는 비행의 원인을 제시함에 있어 특별히 개인의 안정적 성향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한 비행특성과 연관지워 볼 때, 결국 순간만족과 충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서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모든 비행을 설명한다고 보았다. 자기통제력은 어려서 형성되며, 한번 형성되면 변하기 어려운 안정적 성향이기 때문에 결국 어려서 자기통제력이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제로 이 이론은 이후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Grasmick et al., 1993; Gibbs and Giever, 1995; Evans et al., 1997).

이 이론에서는 비행의 원인이 유일하며 자기통제력과 같은 개인의 성향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부모와의 유대가 약한 것도, 또 비행친구와 사귀는 것도 낮은 자기통제력의 결과일 뿐 비행의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 즉 어려서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커서 부모와의 유대가 낮고, 비행친구도 사귀며, 또 동시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사회유대이론에서처럼 부모와의 유대나 또 차별접촉이론에서처럼 비행친구와의 접촉이 비행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 이론에서 본다면 비행의 설명요인은 자기통제력만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이버 언어폭력도 익명의 상황은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익명과 상관없이 자기통제력이 언어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의 경우 상대의 비난에 우발적으로 대응하거나 혹은 재미나 순간쾌락을 위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일반이론에서처럼 익명의 상황과 관계없이 개인의 자기통제력 혹은 충동성향의 수준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Ⅲ . 연구문제 및 방법

Ⅲ

1. 연구문제의 설정
2. 연구방법 및 변인측정

Ⅲ. 연구문제 및 방법

1. 연구문제의 설정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들에 근거하여 사이버상의 익명상황이 과연 사이버 언어폭력의 원인이 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의 관련 요인을 제시하고 그것을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 익명성의 영향과 매개작용

본 연구는 먼저 몰개성화이론의 논의에서처럼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공적 자아의식을 낮추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공적 자아의식이 낮은 청소년이 남의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덜 의식하여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은지를 살펴보고 한다. 즉 익명성의 영향은 공적 자아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또한 사적 자아의식을 낮추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자아의식이론에서는 익명의 상황이 사적 자아의식을 높인다고 하지만(Matheson and Zanna, 1988), 여기서는 몰개성화의 논의에서처럼 사이버공간의 익명의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은 사적 자아의식이 낮고, 그럼으로써 사적 자아의식이 낮은 청소년은 언어폭력을 금기하는 내적 규범의식이 약화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조절됨이 없이 충동적이고 절제되지 않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인해 언어폭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Postmes and Spears, 1998). 즉 익명성의 영향력은 사적 자아의식에 의해 매개될 것이며, 아울러 언어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와 사이버공간상의 충동성의 작용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사회실재감 및 사회단서 부족 이론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은 상대가 텍스트 상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실재감이 매우 낮아 대화하는 상대를 덜 의식하게 되는 것이 언어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따라서 익명의 상황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상대에 대한 인식에 의해 그 영향력이 매개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의 상황에서는 사회실재감이론에서 주장된 것과 같이 상대를 덜 인식하고 덜 친밀하게 생각하게 됨으로 해서, 또한 자신의 언어폭력으로 결과 될 상대방의 고통이나 피해를 덜 인지하게 만듦으로써 언어폭력의 가능성을 높인다고도 볼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또한 예상되는 발각, 처벌가능성의 인지도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언어폭력으로 인해 발각과 처벌이 약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청소년들이 언어폭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만 기존의 논의들에 따르면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나 충동성과 비교할 때 처벌가능성의 인지는 여러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그 설명력이 크게 미약했다는 점에서(Paternoster et al., 1983; Thomas and Bishop, 1984), 익명의 상황이 발각, 처벌인지도의 약화를 가져오지만 그런 이유로 언어폭력을 하게 되는 경로의 작용은 다소 약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익명성의 언어폭력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봄에 있어 그 직접적 영향력이외에 그 영향력이 공적 자아의식, 사적 자아의식, 언어폭력 용인태도, 상황충동성, 상대인지도, 상대피해인지도, 그리고 처벌인지도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기존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

이 연구는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의 원인을 제시함에 있어 익명성의 영향력과 아울러 기존 비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면서 어떠한 요인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기존 주요 설명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애정유대관계,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허용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 등 다섯 가지이다. 즉 익명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존 비행연구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것처럼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의 강압적 양육의 환경에서 자라며, 비행친구와 사귀고,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충동적인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3) 통합론적 논의

그러나 언어폭력은 익명의 상황과 기존 전통이론들에서 강조되어 왔던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야 더욱 더 발생하게 된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 누구나 다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익명의 상황에 있게 되는 청소년들이 특별히 부모와의 유대가 약하고, 부모가 강압적이며, 비행친구와 사귀고,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지며, 자기통제력이 낮은 경우에 한해 그러한 청소년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상대에게 언어폭력을 더욱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그러한 사회환경과 성향의 아이들이 언제나 사이버상에서 언어폭력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고 익명의 상황에서 특별히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즉 익명성과 그러한 제반 요인들은 독립적으로도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대하여 유

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 이외에도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측한다.

4) 사회배경변인의 영향력

한편 기존 폭력연구에서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폭력을 더욱 저지른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이유로 성을 주요 변인으로 상정한다. 사실 언어폭력의 경우에서도 성차이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남성은 주로 의사소통방식이 강한 자기주장과 논쟁 중심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또한 냉소주의적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층변인도 언어폭력과 관련이 높을 수 있다. 기존의 주장에서 보면 하층의 청소년들이 폭력을 더욱 저지르게 된다고 하는데 (Heimer, 1997),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도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하층 청소년들이 더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여기서는 이들 변인을 통제변인으로 다루기로 한다.

아울러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연령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연령이 많은 매체경험이 많은 사람보다 초보자가 인터넷규범을 모르고 자신의 주장만을 펼치다가 언어폭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Thompson, 1996).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연령을 또 다른 예측변인이자 통제변인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및 변인측정

1) 연구방법

본 연구가설의 직접적인 검증을 위해 질문지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실 익명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험방법을 통해 인위적으로 한 집단은 실명으로, 다른 집단은 익명으로 사용하게 한 후 사용하는 언어를 서로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는 방법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익명의 상황이 중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때문인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려 하고 있고, 또한 아울러 익명이외에 다른 사회환경, 개인 요인들을 상정하여 그 영향력을 비교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연구의 조사 연구대상자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남녀 중, 고등학생으로 한다. 중학교의 경우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을 비율별로 고려하여 1개의 남자학교, 1개의 여자학교, 4개의 남녀공학학교를 선정하였고, 고등학교의 경우 남학교 3개교와 여학교 3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2개 학교에서는 각각 1,2,3학년 한 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 학생 전원에게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한 학급당 30여명씩, 한 학교는 100여명씩 총 1113명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03년 5월에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2) 변인측정

이 연구에서 다루려고 하는 주요 요인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익명성

먼저 익명성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토론방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주로 실명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익명을 사용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주로 실명으로 한다”에서부터 “실명의 경우가 다소 많다”, “반반이다”, “익명의 경우가 다소 많다”, “주로 익명으로 한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역으로 부호화하였다.

(2) 매개요인들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 자아의식은 Fenigstein과 동료들(1975)에서 제시된 항목을 사용하였는데, 공적 자아의식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토론방에서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신경을 쓴다”, “상대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많이 생각한다”.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 주려고 한다”, “나는 상대방의 나에게 대한 평가에 민감한 편이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alpha=.792$).

사적 자아의식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토론방에서 “나는 내 주관과 생각대로 말한다”, “나는 내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나는 나 자신을 알려고 노력한다”, “나는 내안의 느낌과 감정이 무언지 신경을 쓴다”의 네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alpha=.763$).

언어폭력용인태도는 욕설과 비방, 허위정보,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음란대화나 성희롱 각각에 대해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인터넷에서 음란대화나 성희롱을 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를 5점 척도로 질문을 하고 역으로 부호화한다.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상황충동성을 위해서는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토론방에서 “나는 충동적으로 말하게 된다”, “나를 조절하기가 힘들다”, “나는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분 나빠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등 네 문항을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거의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alpha=.775$).

상대의식은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토론방에서 “나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의 한 문항을 질문하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상대피해인지도는 욕설과 비방, 허위정보,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음란대화나 성희롱 각각에 대해 “인터넷에서 욕설과 비방을 한다고 할 때 상대 사람들의 피해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 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 때 상대 사람들의 피해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인터넷에서 음란대화나 성희롱을 한다고 할 때 상대 사람들의 피해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

처벌인지도는 욕설과 비방, 허위정보,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그리고 음란대화나 성희롱 각각에 대해 “인터넷에서 욕설과 비방을 한다고 할 때 발각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에서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 남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동을 한다고

할 때 발각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에서 음란대화나 성희롱을 한다고 할 때 발각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를 질문하고 “전혀 안그럴 것이다”에서 “확실히 발각, 처벌될 것이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

(3) 기존 주요 요인들

가정환경요인으로 부모와 애정유대관계는 부모의 애정과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애착을 모두 질문하였는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역부호화),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나는 부모님이 좋다”, “나는 부모님에게 만족한다” 등 다섯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alpha=.769).

부모의 강압적 양육은 “부모님은 나에게 손찌검을 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혼내실 때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신다”, “부모님은 나를 몽둥이로 때리신다”의 세 문항으로 질문을 하였고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한다(alpha=.745).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위해서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비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친구의 수로 알아보았고, “없다”, “1명”, “2-3명”, “4-6명”, “그 이상”에 응답하도록 한다.

폭력용인태도는 “남을 때리고 폭행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라는 하나의 질문에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역으로 부호화하였다.

자기통제력은 충동성, 위험추구성, 현재지향성, 무계획성을 나타내는 문항들(Grasmick et al., 1993), 즉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재미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다” 등 9개 문항을 사용한다($\alpha=.808$).

(4) 종속변인

종속변인으로 다룰 사이버 언어폭력은 세 가지 행동을 질문했는데, 첫째, 인터넷상에서의 욕설이나 비방, 둘째, 허위정보나 유언비어 유포와 명예훼손, 셋째로 음란한 대화나 성희롱을 했는지를 각각 지난 1년간의 경험과 빈도를 질문하였는데, ‘없다’, ‘일년에 한두번’, ‘두세달에 한번’, ‘한달에 한번’,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에 해당되도록 재부호화하고 0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였는데, 전체 언어폭력은 위의 세 행동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용하도록 했다.

(5) 통제변인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할 통제변인으로 성, 연령 이외에 응답자 부모의 교육수준과 가족의 수입 등 가정구조적 변인을 위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을 각각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에 응답하도록 하고, 또한 가족의 수입은 한달 평균수입을 ‘100만원 이하’, ‘101-200만원’,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에 응답하도록 한다.

IV. 분석결과

IV

1. 청소년의 사회참여활동에
관한 분석결과
2. 청소년의 직업의식에
관한 분석결과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먼저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사회배경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에 제시되듯이 총 대상자 1113명 중 남학생이 559명으로 50.2%를, 여학생이 554명으로 49.8%를 차지해 거의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13세부터 20세까지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비슷한 수로 조사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4세에서 19세에 각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계층적 변인의 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응답자들의 부모님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이 560명(50.3%)으로 다소 많았고, 어머니는 고졸이 622명(55.9%)으로 대졸 353명(31.7%)보다 많아 아버지 학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을 통해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가족의 월수입이 200만원대가 245명(22.0%)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대 211명(19.0%), 300만원대도 200명(18.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가정은 65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5.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조사대상자의 특성

		명수	비율(%)
성	남자	559	50.2
	여자	554	49.8
연령	13세	28	2.5
	14세	168	15.1
	15세	178	16.0
	16세	183	16.4
	17세	195	17.5
	18세	185	16.6
	19세	169	15.2
	20세	2	.2
	무응답	5	.4
부교육	중졸이하	55	4.9
	고졸	450	40.4
	대졸이상	560	50.3
	무응답	48	4.3
모교육	중졸이하	90	8.1
	고졸	622	55.9
	대졸이상	353	31.7
	무응답	48	4.3
가족수입	100만원 이하	65	5.8
	101-200만원	211	19.0
	201-300만원	245	22.0
	301-400만원	200	18.0
	400만원 이상	179	16.1
	무응답	213	19.1
총		1113	100.0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결과

1)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빈도분석

(1) 익명성 빈도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분석의 결과에서, 먼저 응답자들이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지의 결과를 보면 <표 I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전 익명의 상태로 대화를 나누는 경우는 73명(6.6%)이었고, 대체로 익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228명(20.5%)로 응답자의 27.1%가 익명으로 대화를 나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익명과 실명의 사용이 거의 반반이라는 응답은 304명(27.3%)이었고, 실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은 완전실명이 142명(12.8%), 대체로 실명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357명(32.1%)으로 응답자의 44.9%가 실명으로 대화를 한다는 응답을 보여 익명의 경우 27.1%보다 실명으로 대화를 더 나누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많은 학생들이 이메일의 사용에서 실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최근 실명을 원하는 사이트가 증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IV-2> 익명성의 빈도

	빈도	비율 (%)
완전 실명	142	12.8
실명	357	32.1
반반	304	27.3
익명	228	20.5
완전 익명	73	6.6
무응답	9	.8
합계	1113	100

(2) 사이버 언어폭력 빈도

응답자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얼마나 언어폭력을 하고 있는지의 지난 일년간의 경험 횟수를 보면 그것을 욕설비방, 허위정보의 유포, 그리고 음란대화 등의 경우로 각각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IV-3a>에서부터 <표 IV-3c>까지 제시된다.

먼저 욕설비방의 경우는 <표 IV-3a>에서처럼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25명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고, 일년에 한두번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133명(11.9%), 두세달에 한번이 85명(7.6%), 한달에 한번이 54명(4.9%),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한다는 응답이 5명(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나 유언비어의 유포의 경우는 그 경험이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표 IV-3b>에서처럼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1028명으로 전체의 92.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일년에 한두번 한 적

이 있다는 응답이 44명(4.0%), 두세달에 한번이 24명(2.2%), 한달에 한번이 11명(1.0%),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한다는 응답이 1명(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란대화의 경우는 <표 IV-3c>에서처럼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더욱 적어 1055명인 전체의 94.8%를 나타냈고, 일년에 한두번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26명(2.3%), 두세달에 한번이 17명(1.5%), 한달에 한번이 7명(0.6%),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한다는 응답이 3명(0.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사이버공간에서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응답자의 4명 중 1명이 그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나 유언비어의 유포, 그리고 음란대화의 경험은 극히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a> 욕설비방의 빈도

	빈도	비율(%)
없음	825	74.1
일년에 한두 번	133	11.9
두세 달에 한번	85	7.6
한달에 한번	54	4.9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5	.4
무응답	11	1.0
합계	1113	100

<표 IV-3b> 허위정보의 빈도

	빈도	비율(%)
없음	1028	92.4
일년에 한두 번	44	4.0
두세 달에 한번	24	2.2
한달에 한번	11	1.0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1	.1
무응답	5	.4
합계	1113	100

<표 IV-3c> 음란대화의 빈도

	빈도	비율(%)
없음	1055	94.8
일년에 한두 번	26	2.3
두세 달에 한번	17	1.5
한달에 한번	7	.6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3	.3
무응답	5	.4
합계	1113	100

2)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1) 익명성과 매개요인들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 변인들의 평균점수 등의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면, 먼저 익명성과 매개요인들의 경우, 익명성은 앞서 <표 IV-2>에서 살펴본 것처럼 5점 척도에서 중간인 3점에 조금 못미쳐 응답자들은 평소 다소 약간 높게 익명보다는 실명의 상황에서 채팅과 게시판에서의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공간에서의 대화중 남들에게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는 공적 자아의식의 경우는 4에서 20까지의 점수 범위에서 평균점수가 15.513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자기 자신에게 주의와 신경을 쓰는 사적 자아의식의 경우도 평균점수가 14.441로 대체로 그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을 얼마나 용인하는가의 점수를 욕설비방, 허위정보 유포, 음란대화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면 대체로 그 점수가 낮아 응답자들은 사이버 언어폭력의 행위를 허용하지는 않고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설비방 2.612보다는 허위정보 유포 2.502가, 그리고 그보다는 음란대화 2.382의 점수가 더욱 낮아 음란대화를 더욱 허용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응답자들이 사이버공간의 대화에서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 되는가의 상황충동성의 점수를 보면 4점에서 20점까지의 범위에서 평균점수가 11.371로 평균적으로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다.

<표 IV-4> 익명성과 매개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익명성	2.758	1.119	1-5
공적자아	14.513	3.003	4-20
사적자아	14.441	2.796	4-20
용인태도(욕설비방)	2.612	.901	1-5
용인태도(허위정보)	2.502	.828	1-5
용인태도(음란대화)	2.382	.830	1-5
상황충동	11.371	3.315	4-20
상대의식	2.414	.919	1-5
상대피해(욕설비방)	3.972	1.201	1-5
상대피해(허위정보)	4.052	1.168	1-5
상대피해(음란대화)	4.253	1.093	1-5
처벌인지(욕설비방)	3.455	1.388	1-5
처벌인지(허위정보)	3.613	1.313	1-5
처벌인지(음란대화)	3.821	1.313	1-5

사이버공간에서 대화할 때 대화하는 상대방을 얼마나 의식하는가의 정도를 보면 5점 척도의 질문에서 평균점수가 2.414로 대체로 약간 낮게 상대방을 덜 의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울러 언어폭력으로 상대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울까를 생각하는 정도를 보면 욕설비방 3.972, 허위정보 유포 4.052, 음란대화 4.253 모두에서 대체로 그 점수가 매우 높아 상대의 피해를 크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설비방으로 인한 상대피해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허위정보의 유포, 그리고 그보다는 음란대화로 인한 상대피해 인지도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언어폭력으로 인한 발각가능성과 처벌인지도의 경우를 보면 욕설비방 3.455, 허위정보 유포 3.613, 음란대화 3.821로 그 점수가 그다지 크게 높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처벌을 인지한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욕설비방보다는 허위정보 유포, 그리고 그보다는 음란대화의 경우 처벌의 가능성을 다소 더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존 주요 영향요인들

한편 기존의 폭력비행연구에서 주요 요인들로 다루어졌던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면 <표 IV-5>에 제시된 것처럼, 먼저 부모와 응답자간의 애정, 유대관계는 5-25범위에서 평균점수가 20.143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가 매와 폭력을 사용하는 강압적인 양육의 경우는 3-15범위에서 5.930으로 그 평균점수가 낮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비행친구의 수의 경우 평균점수가 1.491로 매우 낮아 응답자들은 비행친구가 있는 아이들이 적었으며,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도 1-5범위에서 2.117로 낮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폭력을 용인하지 않고 그 행동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의 경우 9-45범위에서 평균점수가 28.920으로 이 전반적으로는 중간보다 다소 높은 정도로 제시되었다.

<표 IV-5> 기존 주요 요인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부모유대	20.143	3.272	5-25
부모강압	5.930	2.604	3-15
비행친구	1.491	1.029	1-5
폭력태도	2.117	.879	1-5
자기통제력	28.920	5.856	9-45

(3)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언어폭력을 보면 앞서 빈도분석에서 제시했듯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사이버 언어폭력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욕설비방의 경우는 그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IV-6>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기술적 통계분석 결과

	평균	표준편차	범위
욕설비방	.440	.866	0-4
허위정보	.116	.466	0-4
음란대화	.084	.422	0-4
언어폭력전체	.636	1.281	0-12

3.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익명성과 제반 요인들의 사이 버 언어폭력과 관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에 먼저 익명성과 공격 자아의식과 같은 매개요인들간의 관계의 결과를 제시하고, 익명과 매개요인들, 그리고 가정요인과 같은 기존의 주요 변인들 및 사회배경변인들 각각과 사이버 언어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려고 한다.

1) 익명성과 매개요인들의 관계

먼저 익명성을 5점 척도에서 실명의 사용이 높은 경우(1,2점), 반반인 경우(3점), 익명의 사용이 높은 경우(4,5점)로 익명성을 하, 중, 상으로 구분하고 그것과 여러 매개요인들과의 관계를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표 IV-7>의 익명성과 공격 자아의식의 관계의 경우 익명성이 낮았을 때보다 중간인 경우가 공격 자아의식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본 연구의 예측과는 달리 익명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격 자아의식은 오히려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와 전체적으로 익명성과 공격 자아의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이 높을 때 사적 자아의식이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표 IV-8>에서 보듯이 이 또한 익명성이 낮았을 때보다 중간인 경우 사적 자아의식의 점수는 낮았으나 익명성이 높을 때 사적 자아의식의 점수가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익명성과 사적 자아의식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7> 익명성과 공격자아

	하	중	상	F
공격자아	14.472	14.153	14.936	5.211**

#<.10; *p<.05; **p<.01; ***p<.001

<표 IV-8> 익명성과 사적자아

	하	중	상	F
사적자아	14.523	14.251	14.492	.962

#<.10; *p<.05; **p<.01; ***p<.001

<표 IV-9>의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용인태도와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익명성이 높았을 때 용인태도의 점수가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욕설비방, 허위정보의 유포, 음란대화 모두의 경우에서 익명성과 용인태도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익명성과 용인태도

	하	중	상	F
욕설비방	4.384	4.403	4.377	.068
허위정보	4.502	4.490	4.493	.022
음란대화	4.667	4.566	4.588	1.652

#<.10; *p<.05; **p<.01; ***p<.001

아울러 익명성과 대화중 흥분하고 충동적인가를 나타내는 상황충동성과의 관계는 <표 IV-10>에서 나타난 것처럼 익명의 상황에서 그 점수가 다소 높아 더욱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익명성과 상황충동

	하	중	상	F
상황충동	11.235	11.300	11.643	1.501

#<.10; *p<.05; **p<.01; ***p<.001

익명의 상황에서는 대화하는 상대를 덜 의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표 IV-11>에서처럼 익명성과 상대의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아울러 익명의 상황에서는 언어폭력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의 피해를 덜 인지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비록 <표 IV-12>에서처럼 익명의 상황이 높을수록 상대피해 인지도의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익명성과 상대피해 인지도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익명성과 상대의식

	하	중	상	F
상대의식	2.363	2.472	2.440	1.501

#<.10; *p<.05; **p<.01; ***p<.001

<표 IV-12> 익명성과 상대피해인지

	하	중	상	F
욕설비방	4.026	3.983	3.843	2.228
허위정보	4.048	4.089	4.000	.439
음란대화	4.287	4.275	4.156	1.459

#<.10; *p<.05; **p<.01; ***p<.001

앞서 본 연구에서 제시했던 다른 매개요인들이 익명성과는 그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표 IV-13>의 익명성과 처벌인지도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욕설비방의 경우는 익명의 상황이 높을 때 $p<.05$ 수준에서 처벌인지도가 낮다는 결과를 보였고, 음란대화의 경우는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냈다. 그러나 익명성과 허위정보 유포에 있어서의 처벌인지도와는 익명성이 높을수록 그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 익명성과 처벌인지

	하	중	상	F
욕설비방	3.503	3.528	3.282	3.042*
허위정보	3.649	3.647	3.495	1.479
음란대화	3.919	3.832	3.621	4.897**

#<.10; *p<.05; **p<.01; ***p<.001

2) 제반 요인들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

익명성 및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제반 요인들과 사이버언어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보면 <표 IV-14>부터 <표 IV-32>까지 제시되어 있다.

(1) 익명성과 매개요인들과 사이버 언어폭력

먼저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14>에 제시된 것처럼 익명성이 높을 때 사이버언어폭력 전체의 가능성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과는 통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그 관계는 욕설비방에서 $p<.05$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허위정보 유포와는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익명성과 음란대화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4>익명성과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387	.422	.554	3.533*
허위정보	.081	.151	.143	2.775#
음란대화	.075	.096	.090	.264
언어폭력전체	.533	.672	.782	3.631*

#<.10; * $p<.05$; ** $p<.01$; *** $p<.001$

<표 IV-15>의 공적 자아의식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나 언어폭력 유형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표 IV-16>의 사적 자아의식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도 전체적으로나 언어폭력 유형별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표 IV-7>과 <표 IV-8>의 앞서 결과와 함께 보더라도 익명성이 공적 자아의식 혹은 사적 자아의식을 낮춤으로써 언어폭력을 유발할 것이라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표 IV-15> 공적자아와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350	.452	.491	2.327#
허위정보	.111	.112	.128	.174
음란대화	.085	.061	.104	1.008
언어폭력전체	.545	.626	.713	1.505

#<.10; *p<.05; **p<.01; ***p<.001

<표 IV-16> 사적자아와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439	.424	.464	.228
허위정보	.141	.087	.126	1.369
음란대화	.100	.079	.081	.220
언어폭력전체	.673	.593	.660	.414

#<.10; *p<.05; **p<.01; ***p<.001

그러나 사이버 언어폭력에 허용하는 태도와 사이버 언어폭력간에는 <표 IV-17>에서처럼 전체적으로나 유형별로도 모두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에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p<.001$ 수준에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허위정보의 유포의 경우에서만 그 정도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낮았다.

아울러 사이버공간의 대화상에서 얼마나 충동적인가의 상황충동성과 사이버 언어폭력간의 관계도 <표 IV-18>에서처럼 상황충동성이 높을수록 전체적으로 볼 때 $p<.001$ 수준에서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유형별로 보아도 음란대화의 경우에서만 $p<.01$ 수준에서 유의미했고 욕설비방이나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표 IV-9>과 <표 IV-10>의 앞서 결과에서 보았듯이 익명성과 허용태도, 그리고 상황충동성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익명의 상황에서 그러한 이유로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표 IV-17> 용인태도와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279	.611	.797	33.856***
허위정보	.092	.121	.233	5.088**
음란대화	.049	.107	.343	22.610***
언어폭력전체	.374	.809	1.019	27.181***

#<.10; * $p<.05$; ** $p<.01$; *** $p<.001$

<표 IV-18> 상황충동과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292	.376	.742	23.407***
허위정보	.056	.107	.212	8.599***
음란대화	.055	.063	.161	5.934**
언어폭력전체	.404	.543	1.100	25.223***

#<.10; *p<.05; **p<.01; ***p<.001

한편 <표 IV-19>에서처럼 사이버공간에서 대화하는 상대를 얼마나 인식하는가의 정도와 사이버 언어폭력간에는 전체적으로나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도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9> 상대의식과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466	.400	.432	.630
허위정보	.111	.127	.127	.159
음란대화	.083	.087	.087	.014
언어폭력전체	.654	.613	.640	.106

#<.10; *p<.05; **p<.01; ***p<.001

그러나 <표 IV-20>에서와 같이 대화하는 상대가 얼마나 피해를 입고 고통스러워하는가의 상대에 대한 피해를 인지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p<.001$ 수준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관계는 욕설비방의 경우에서 더욱 강했고, 상대피해 인지와 음란대화의 관계는 $p<.10$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0> 피해인지와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792	.516	.353	17.252***
허위정보	.294	.112	.091	9.921***
음란대화	.180	.063	.078	2.573#
언어폭력전체	1.019	.756	.475	16.079***

#<.10; * $p<.05$; ** $p<.01$; *** $p<.001$

<표 IV-21>의 처벌인지도와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면 전체적으로 처벌인지도가 높을수록 사이버 언어폭력은 $p<.01$ 수준에서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처벌인지도와 욕설비방의 관계는 $p<.001$ 수준에서 강하게 나타났고, 처벌인지도와 허위정보 유포와의 관계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처벌인지도와 음란대화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 처벌인지와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588	.424	.365	6.637***
허위정보	.178	.124	.089	3.221*
음란대화	.114	.080	.076	.636
언어폭력전체	.868	.682	.522	5.558**

#<.10; *p<.05; **p<.01; ***p<.001

(2) 기존 주요 요인들과 사이버 언어폭력

기존의 폭력비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을 중심으로 이들 요인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표 IV-22>의 부모와의 유대 및 애정관계와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나 유형별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그 요인의 중요성이 매우 낮았다.

<표 IV-22> 부모유대와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447	.460	.399	.567
허위정보	.127	.103	.122	.268
음란대화	.080	.083	.091	.063
언어폭력전체	.647	.645	.605	.129

#<.10; *p<.05; **p<.01; ***p<.001

그러나 <표 IV-23>의 부모의 강압적 양육과 사이버 일탈과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강압적 양육이 높은 경우가 $p<.05$ 수준에서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로 보면 부모의 강압적 양육은 욕설비방의 경우에서만 $p<.10$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을 뿐 허위정보 유포나 음란대화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3> 부모강압과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380	.475	.527	2.897#
허위정보	.091	.143	.126	1.350
음란대화	.067	.110	.090	1.048
언어폭력전체	.535	.722	.738	3.179*

$<.10$; * $p<.05$; ** $p<.01$; *** $p<.001$

<표 IV-24>에서 제시되고 있는 비행친구의 수와 사이버 일탈과의 관계를 보면 그 관계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전체 사이버 언어폭력은 $p<.001$ 수준에서 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 유포에서만 $p<.01$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비행친구의 수와 욕설비방, 그리고 비행친구의 수와 음란대화는 그 관계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비행친구와 사이버 언어폭력

	없다	있다	F
욕설비방	.344	.765	46.424***
허위정보	.097	.184	6.686**
음란대화	.047	.214	30.412***
언어폭력전체	.483	1.163	55.319***

#<.10; *p<.05; **p<.01; ***p<.001

한편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와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도 <표 IV-25>에서처럼 폭력을 용인하는 태도를 가질수록 전체 사이버언어폭력의 가능성은 $p<.05$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폭력태도와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는 욕설비방과의 관계에서만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폭력태도와 허위정보 유포, 폭력태도와 음란대화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앞서 <표 IV-17>에서처럼 직접적인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해 갖는 용인태도보다는 그 관계가 낮았으나 일반적인 폭력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용인하는 태도를 갖는 청소년도 사이버 언어폭력,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대화중 상대방에 대한 욕설과 비방의 가능성은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25> 폭력태도와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330	.440	.538	4.234*
허위정보	.114	.103	.142	.693
음란대화	.066	.079	.107	.740
언어폭력전체	.511	.611	.787	3.584*

#<.10; *p<.05; **p<.01; ***p<.001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26>에서와 같이 자기통제력의 수준이 낮을수록 전체적인 사이버 언어폭력의 정도는 $p<.001$ 수준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비록 자기통제력과 허위정보의 유포와는 $p<.10$ 수준에서 그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자기통제력과 욕설비방, 그리고 자기통제력과 음란대화의 관계는 모두 $p<.001$ 수준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언어폭력

	하	중	상	F
욕설비방	.653	.420	.311	12.588***
허위정보	.160	.124	.073	2.876#
음란대화	.171	.063	.046	7.803***
언어폭력전체	.985	.603	.419	15.872***

#<.10; *p<.05; **p<.01; ***p<.001

(3) 사회배경변인들과 사이버 언어폭력

사회배경변인들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일원변량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표 IV-27>의 성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보다 더 $p<.001$ 수준에서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게 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성과 허위정보 유포의 관계는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그 관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남자청소년은 욕설비방과 음란대화에서 $p<.001$ 수준에서 여자청소년보다 더 많이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7> 성과 사이버 언어폭력

	남	여	F
욕설비방	.556	.326	19.778***
허위정보	.158	.074	9.081*
음란대화	.139	.029	19.055***
언어폭력전체	.847	.428	30.242***

#<.10; * $p<.05$; ** $p<.01$; *** $p<.001$

한편 응답자의 연령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28>에 제시되듯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6에서 17세의 중간 연령의 청소년들이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저질렀으며, 18세이상의 나이 많은 청소년보다는 13세부터 15세까지의 상대적으로 어린 청소년들이 더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관계는 욕설비방의 경우에서 그렇게 나타나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음란대화의 경우도 $p<.10$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그 결과를 중

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로 살펴보면 사이버 언어폭력에 있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차이는 <표 IV-29>에서처럼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연령과 사이버 언어폭력

	13-15세	16-17세	18-20세	F
욕설비방	.478	.499	.332	4.001*
허위정보	.107	.146	.093	1.308
음란대화	.056	.119	.070	2.333#
언어폭력전체	.643	.761	.486	4.283*

#<.10; *p<.05; **p<.01; ***p<.001

<표 IV-29> 중고여부와 사이버 언어폭력

	중학생	고등학생	F
욕설비방	.469	.415	1.080
허위정보	.123	.111	.187
음란대화	.076	.091	.309
언어폭력전체	.670	.606	.676

#<.10; *p<.05; **p<.01; ***p<.001

부모의 교육수준과 사이버 언어폭력의 관계를 보면 <표 IV-30>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나 욕설비방, 그리고 허위정보

유포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음란대화와의 관계는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음란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중졸이하의 저학력일 때, 그리고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인 중간인 경우에서 음란대화를 적게 하여 그 차이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0> 부교육과 사이버 언어폭력

	중졸	고졸	대졸	F
욕설비방	.473	.452	.434	.082
허위정보	.218	.112	.107	1.467
음란대화	.073	.045	.116	3.592*
언어폭력전체	.764	.598	.658	.541

#<.10; * $p<.05$; ** $p<.01$; *** $p<.001$

비슷한 결과가 <표 IV-31>의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는데, 특히 음란대화의 경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일 때 음란대화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중졸이하, 고졸 순으로 그 차이가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매우 낮을 때 언어폭력의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1> 모교육과 사이버 언어폭력

	중졸	고졸	대졸	F
욕설비방	.500	.404	.487	1.272
허위정보	.200	.094	.128	2.326#
음란대화	.067	.053	.142	5.061**
언어폭력전체	.767	.542	.759	3.791*

#<.10;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가족의 수입과 사이버 언어폭력과의 관계를 보면 <표 IV-3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볼 때 오히려 가족의 수입이 높은 청소년들이 p<.10수준에서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관계는 다소 낮았다. 욕설비방이나 허위정보의 유포의 경우는 가족의 수입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고 매우 낮았다.

<표 IV-32> 가족수입과 사이버 언어폭력

	100만 이하	101-200	201-300	301-400	401만 이상	F
욕설비방	.400	.426	.408	.500	.523	.688
허위정보	.015	.100	.098	.136	.180	1.887
음란대화	.123	.029	.073	.085	.151	2.239#
언어폭력전체	.539	.531	.571	.727	.854	2.181#

#<.10; *p<.05; **p<.01; ***p<.001

4. 익명성과 언어폭력: 다중회귀분석 결과

1) 익명성과 언어폭력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이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기 위해 응답자들의 사회배경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표 IV-33>에 제시되듯이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어폭력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계층관련 배경변인들 중 부모의 교육수준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가족수입이 많은 잘 사는 청소년들이 $p<.05$ 수준에서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남자학생들이 여자학생들보다 $p<.001$ 수준에서 더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영향력은 $p<.10$ 수준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언어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IV-34>에서 보듯이 음란대화의 경우 익명성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욕설비방의 경우는 $p<.05$ 수준에서, 그리고 허위정보나 유언비어의 유포, 명예훼손의 경우는 $p<.01$ 수준에서 익명의 상황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익명의 영향력은 보통 욕설이나 비속어보다는 다소 심각한 언어폭력에서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V-33> 익명성의 사이버언어폭력(전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언어폭력 (전체)	
	b	β
남성	.375***	.150
연령	-.043#	-.061
부교육	-.138	-.066
모교육	.092	.044
수입	.092	.090
익명성	.117**	.106
상수	.528	
R제곱	.049	
F검증	***	

#<.10; *p<.05; **p<.01; ***p<.001

<표 IV-34>를 보면 남자청소년이 욕설이나 음란대화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허위정보의 유포의 경우는 다소 그 영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 $p<.05$ 수준에 유의미하지 않았고, 계층변인은 다른 유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특별히 가족의 수입이 높은 청소년이, 그리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낮은 청소년이 더 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연령의 영향력은 욕설과 비방의 경우에 한하여 나이가 적은 청소년이 $p<.05$ 수준에서 더 욕설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4> 익명성의 사이버언어폭력(유형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욕설비방		허위정보		음란대화	
	b	β	b	β	b	β
남성	.221***	.127	.061#	.066	.105***	.125
연령	-.037*	-.074	-.072	-.028	.037	.015
부교육	-.082	-.056	-.076*	-.099	.015	.021
모교육	.046	.032	.017	.002	.044	.064
수입	.037	.051	.040**	.105	.011	.031
익명성	.066*	.087	.037**	.093	.010	.028
상수	.516**		.129		-.083	
R제곱	.034		.029		.027	
F검증	***		***		***	

#<.10; *p<.05; **p<.01; ***p<.001

2) 익명성과 기존 주요 요인들과의 영향력 비교

<표 IV-35>는 익명성과 기존 연구들에서 폭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용되어 왔던 주요 원인들과의 비교를 위해 그들을 함께 독립변인으로 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그 결과를 보면 다른 주요 변인들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성의 영향력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사이버상의 익명상황이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익명성이외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P<.001$ 수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도 비행친구와의 접촉보다는 그 영향력이 작았지만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공간상의 언어폭력은 익명의 상황이외에 행위자들의 사회,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라든가,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이나 부모의 강압적 양육 같은 가정요인이나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표 IV-36>에서처럼 언어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앞서 결과에서처럼 익명성의 영향력은 음란대화를 제외한 욕설과 비방의 경우나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모두에서 다른 주요 변인들을 통제했음에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전체 언어폭력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자기통제력의 경우 욕설비방과 음란대화에서만 유의미했고,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는 익명성이외의 다른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욕설비방의 경우는 비행친구와의 접촉과 자기통제력이외에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도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익명성과 기존 주요 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전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언어폭력 (전체)	
	b	β
남성	.230**	.093
연령	-.060**	-.085
부교육	-.101	-.049
모교육	.057	.028
수입	.061#	.060
익명성	.114**	.105
부모유대	.010	.026
부모강압	.047	.010
비행친구	.234***	.196
폭력태도	.063	.045
자기통제력	-.026***	-.121
상수	-.390	
R제곱	.106 ***	
F검증		

#<.10; *p<.05; **p<.01; ***p<.001

<표 IV-36> 익명성과 기존 주요 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유형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욕설비방		허위정보		음란대화	
	b	β	b	β	b	β
남성	.134*	.077	.038	.043	.075*	.088
연령	-.047**	-.095	-.057	-.023	-.040	-.016
부교육	-.057	-.040	-.084*	-.115	.031	.044
모교육	.026	.019	-.035	-.005	.035	.049
수입	.021	.030	.031*	.086	.029	.008
익명성	.067**	.088	.030*	.078	.012	.032
부모유대	.042	.015	.047	.033	.019	.014
부모강압	.073	.022	.062	.036	-.077	-.046
비행친구	.139***	.167	.070	.016	.085***	.205
폭력태도	.081*	.082	-.012	-.024	-.010	-.021
자기통제력	-.014**	-.096	-.046	-.059	-.068*	-.091
상수	.150		-.122		-.395*	
R제곱	.084		.033		.077	
F검증	***		**		***	

#<.10; *p<.05; **p<.01; ***p<.001

3) 익명성 영향의 매개요인 효과

익명성이외에 본 연구에서 익명성의 언어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서 매개요인들로 상정한 변인들을 포함했을 때의 분석결과를 보면 <표 IV-37>에 나타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일곱 개의 매개요인들을 상정했지만 익명성의 영향력은 직접적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 변인들에 의해 크게 매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개요인으로 상정한 변인들의 언어폭력에 대한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적 충동의 영향력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언어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가 $p < .001$ 수준에서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채팅, 게시판에서 대화 중에 쉽게 흥분하거나 자기조절이 어려운 아이들이 언어폭력을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언어폭력이 크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언어폭력을 쉽게 저지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자아의식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사적자아의식은 상황충동성과 언어폭력에 대한 태도에 의해 간접적으로 언어폭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다소 그 영향력은 약하지만 사회실재감이론이나 사회적 단서결여이론에서처럼 상대를 덜 의식하는 청소년이 $p < .05$ 수준에서, 그리고 상대의 피해를 덜 인지하는 청소년이 $p < .10$ 수준에서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비행연구들에서 처벌이나 발각의 가능성이 그 영향력이 낮았던 것처럼 처벌의 인지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연구에서 강조되었던 다른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p < .001$ 수준에서 다른 변인들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서 <표 IV-35>에서는 유의미하게 작용했던 자기통제력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것은 상황충동성에 의해 매개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채팅이나 게시판의 상황에서 쉽게 흥분할 가능성이 높아 언어폭력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를 언어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표 IV-38>에서와 같이 욕설비방의 경우는 상황충동성과 욕설비방에 대한 태도 모두가 크게 유의미하게 작용했으나, 허위정보의 유포의 경우는 상황충동성이 유의미했으나 허위정보유포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음란대화의 경우는 음란대화에 대한 태도만이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의 피해에 대한 인지도는 세 유형모두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여 상대의 피해와 고통을 인지할수록 언어폭력을 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화를 나눌 때 상대를 얼마나 인식하는지는 욕설비방의 경우에 한하여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경우에서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 자아의식, 그리고 처벌인지도의 영향력은 앞서 <표 IV-37>에서처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7> 익명성과 매개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전체)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언어폭력 (전체)	
	b	β
남성	.223**	.090
연령	-.075**	-.106
부교육	-.067	-.032
모교육	.026	.013
수입	.054	.052
익명성	.095**	.087
부모유대	.015	.037
부모강압	-.013	-.003
비행친구	.198***	.166
폭력태도	.030	.021
자기통제력	-.011	-.052
공적자아	-.039	-.009
사적자아	.020	.000
용인태도	.099***	.137
상황충동	.069***	.181
상대의식	-.098*	-.072
피해인지	-.053#	-.075
차별인지	-.027	-.042
상수	-.826	
R제곱	.173	
F검증	***	

#<.10; *p<.05; **p<.01; ***p<.001

<표 IV-38> 익명성과 매개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유형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욕설비방		허위정보		음란대화	
	b	β	b	β	b	β
남성	.149*	.086	.036	.040	.064*	.074
연령	-.061***	-.123	-.060	-.024	-.088	-.036
부교육	-.035	-.024	-.079	-.108	.040	.056
모교육	.043	.000	.056	-.008	.030	.041
수입	.016	.023	.028*	.076	.021	.006
익명성	.055*	.073	.021	.055	.040	.011
부모유대	.010	.037	.036	.026	.060	.044
부모강압	.036	.011	.046	.026	-.089	-.052
비행친구	.114***	.137	-.055	-.001	.080***	.192
폭력태도	.054	.055	-.013	-.026	-.014	-.028
자기통제력	-.063	-.042	.059	.008	-.059*	-.079
공적자아	-.058	-.020	.011	.007	.033	.023
사적자아	.087	.028	.017	.011	-.011#	-.069
용인태도	.158***	.163	.010	.019	.084***	.165
상황충동	.045***	.170	.018***	.136	.067	.051
상대의식	-.104**	-.109	.070	.014	-.051	-.011
피해인지	-.073**	-.104	-.035*	-.093	.040*	.102
차별인지	-.034	-.054	.093	.003	-.018	-.055
상수	1.106**		-.057		-.090	
R제곱	.182		.056		.109	
F검증	***		***		***	

#<.10; *p<.05; **p<.01; ***p<.001

4) 익명성과 기존 주요 요인들의 통합론적 영향

마지막으로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익명성과 부모애정,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용인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을 알아보면, <표 IV-39>에 제시되듯이 상호작용효과는 어떠한 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본 연구의 예측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할 뿐이며,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를 언어폭력 유형별로 보면 <표 IV-40>에서처럼 익명성과 다른 주요 변인들의 상호작용효과는 앞의 전체의 경우에서처럼 욕설 비방 그리고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 그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음란대화의 경우는 익명성과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어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익명의 상황에서 더 음란대화와 성희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형별로 보아도 전체적으로는 익명성의 효과에 대한 통합론적 설명이 다소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제시한다.

<표 IV-39> 익명성과 기존 주요 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전체)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사이버언어폭력 (전체)	
	b	ß
남성	.222**	.090
연령	-.062*	-.087
부교육	-.103	-.050
모교육	.051	.025
수입	.059	.058
익명성	.114	.105
부모유대	.044	.011
부모강압	-.013	-.003
비행친구	.166**	.139
폭력태도	.048	.034
자기통제력	-.034***	-.157
익명*부모유대	.012	.101
익명*부모강압	.013	.035
익명*비행친구	.142#	.118
익명*폭력태도	.033	.055
익명*자기통제	.015	.169
상수	-.372	
R제곱	.110	
F검증	***	

#<.10; *p<.05; **p<.01; ***p<.001

<표 IV-40> 익명성과 기존 주요 요인들의 사이버언어폭력(유형별)에
대한 상호작용효과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욕설비방		허위정보		음란대화	
	b	β	b	β	b	β
남성	.130*	.076	.038	.044	.070*	.082
연령	-.047**	-.096	-.055	-.022	-.051	-.021
부교육	-.054	-.038	-.085*	-.116	.027	.038
모교육	.022	.015	-.023	-.003	.033	.047
수입	.018	.026	.032*	.086	.035	.010
익명성	.109*	.144	.015	.040	-.012	-.032
부모유대	.030	.011	.057	.041	-.016	-.012
부모강압	-.063	-.019	.034	.019	.023	.014
비행친구	.112**	.134	.018	.042	.035	.085
폭력태도	.082#	.083	-.013	-.025	-.024#	-.049
자기통제력	-.023**	-.151	-.027	-.035	-.073*	-.098
익명*부모유대	.037	.044	-.025	-.059	.074	.180
익명*부모강압	.027	.107	.062	.048	-.020#	-.156
익명*비행친구	.057	.068	-.022	-.052	.103***	.248
익명*폭력태도	.025	.006	.013	.006	.025	.119
익명*자기통제	.016#	.256	-.035	-.109	.096	.031
상수	.047		-.081		-.327#	
R제곱	.089		.035		.099	
F검증	***		*		***	

#<.10;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이 과연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보려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이 연구는 또한 익명상황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매개요인을 통해 발견하려고 했고, 익명성의 영향력과 아울러 기존 비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면서 어떠한 요인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어폭력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익명성의 영향력은 다른 매개변인들을 고려했음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 변인들에 의해 크게 매개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그 영향력이 공적 자아의식, 사적 자아의식, 언어폭력 용인태도, 상황충동성, 상대인지도, 상대피해인지도, 그리고 처벌인지도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매개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익명상황에 있을 때에는 공적 자아가 다소 낮아지고 처벌과 발각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공적자아와 처벌인지도의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되어 전체적으로 익명상황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요인들에 의해 매개되지는 않고 다른 이유로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매개요인으로 상정한 일부 변인들의 사이

버 언어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적 충동경향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언어폭력에 대해 갖는 허용적 태도가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덜 의식하는 청소년이, 그리고 상대의 피해를 덜 인지하는 청소년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언어폭력 유형별로 살펴보면 익명의 영향력은 음란대화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욕설과 비속어 사용, 그리고 허위정보의 유포에서 유의미하게 제시되었다. 그리고 보통 욕설이나 비속어보다는 허위정보 유포나 명예훼손 처럼 보다 다소 심각한 언어폭력에서 익명상황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개요인의 영향력에서는 욕설비방의 경우는 상황충동성과 욕설비방에 대한 태도, 상대의식과 상대피해인지도 모두가,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는 상황충동성과 상대피해인지는 유의미했으나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과 상대인식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음란대화의 경우는 음란대화에 대한 태도와 상대피해 인지도가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이외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과 상관없이도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도 비행친구와의 접촉보다는 그 영향력이 작았지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낮고 충동적인 아이들이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익명상황보다 크게 나타나 사이버공간상의 언어폭력은 익명의 상황이외에 행위자들의 사회,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라든가,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이나 부모의 강압적 양육 같은 가정요인이나 일반적

인 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지만 언어폭력 유형별로 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나 자기통제력의 경우 욕설비방과 음란대화에서만 유의미했고, 허위정보 유포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익명성과 부모애정,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용인 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예측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할 뿐이며,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익명의 상황은 분명 청소년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앞서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여러 이론들에서의 매개요인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 물론 측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의 새로운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 이외의 다른 많은 요인들이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잘 설명해 준다는 것을 제시했다. 예컨대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이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제시되었고 오히려 그 설명력은 익명상황보다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 이외에 기존 비행이론으로도 더 크게 잘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언어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갖거나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아이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아이들도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냈다.

2. 정책제언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이 분명 언어폭력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혹자는 실명제 방안을 거론한다. 특별히 인터넷의 과급성과 광범위적인 영향력에 비추어본다면 익명의 상황에서 상대를 공격하고 선동하며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적절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무차별적 욕설을 막고 책임있는 언행을 도모하기 위해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명제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판을 받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시된다. 욕설과 비방의 위험 때문에 실명을 해야 한다면 실제로 실명은 그 이외의 일, 예컨대 토론의 장이나 의견을 나누는 장소에서 자신이 신분이 노출됨으로 인해 적절한 의견과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실명으로 인해 자신이 나중에 비판과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적절한 비판과 논쟁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제된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이며, 또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건설적인 의견의 개진이나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인 경우 힘없이 나중에 더 많은 피해와 손해를 입지 않을까 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더욱 더 적어지는 문제를 앓고 있다. 더군다나 언론의 자유가 사회적으로 보장되지 얼마 안되는 실정에서 익명성을 제한하는 조치는 문제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익명성은 물론 언어폭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민주주의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는 그로 인해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생성될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욕설과 비방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누구

나 사이버공간에서 이름을 먼저 밝혀야 한다면 이것은 평상시 오프라인에서 어떤 모임에 참가하고, 그리고 운전하거나, 상점에 들르고, 거리에 지나갈 때에도 언제나 그러한 위험 때문에, 아니 심지어 더 큰 범죄 위험의 가능성 때문에 내 명찰을 항상 가슴에 붙이고 다녀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 프라이버시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정 게시판에서는 실명을 의무화하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운영 사이트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지 모두가 실명화하고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이버 언어폭력을 익명성의 문제로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익명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울러 익명성과 독립적으로 언어폭력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언어폭력을 많이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상대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윤리교육이 아울러 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익명성의 차단이라는 기술적 차원의 대책이나 실명제라는 대책보다는 사회차원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즉 윤리교육과 아울러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사회문화차원의 정화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욕설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미화되고 또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인식되며, 사이버공간의 문화에서 욕설은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또 자기통제력이 낮은 충동적인 아이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 많이 한다는 점에서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여 자신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교육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특별히 일반이론(자기

통제이론)에서는 어려서부터의 부모의 관심과 애정, 적절한 처벌, 규칙적이고 절제된 아이들을 양육하는 훈육방법을 강조했듯이 절제된 자기통제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올바른 자녀양육을 위한 강좌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연구결과에서는 비행친구와 어울리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관심도 필요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로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비행친구와 어울리듯이 가정과 학교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고, 친구의 유혹에 쉽게 이끌리지 않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언급된다. 아울러 비행친구와 어울릴 경우 자신의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학교나 가정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는 사이버 언어폭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청소년들의 모든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사항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익명의 상황과 연관되는 대책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언어폭력이나 다른 범죄의 위험 때문에 실명제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익명성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며, 그보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 문화운동, 그리고 주위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경원(2000).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의 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섭(1998). PC통신에서의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우 · 김미향(2000). 동기적 가상토론에서 익명성이 토론내용의 논증과 부정적 발언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연구, 16(4), 91-106.
- 이성식(1995). 역할담당감정으로서의 수치심과 청소년비행: 상징적 상호작용모델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617-649.
- 이성식(1998). 비행친구와 비행과의 관계: 통합론적 논의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7, 193-221.
- 이성식(2004). 사이버범죄에 대한 지각된 처벌의 억제효과 검증. 교정연구 22: 91-114.
- 이철선(2003). 가상공동체에서의 플레이밍에 관한 연구. 마케팅연구 18(1), 3-30.
- 천정웅(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최영 · 이종민 · 김병철(2002). 인터넷신문의 공론장 역할에 관한 연구: 토론참여자의 익명성과 토론매개자의 신분이 토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2), 115-158.
- Cernkovich, S.A. and P.C. Giordano(1987). Family relationships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295-319.

- Daft, R.L. and Lengel, R.H.(1986).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s, media richness, and structural design, *Management Science*, 32, 554-571.
- Evans, T.D., Cullen, F.T., Burton, V.S., Dunaway, R.G. and Benson, M.L.(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475-501.
- Felson, R.B.(1996). Big people hit little people: sex differences in physical power and interpersonal violence. *Criminology*, 34(3), 433-52.
- Felson, R.B., A.E. Liska, S.J. South, and T.L. McNulty(1994). The subculture of violence and delinquency: individual vs. school context effects. *Social Forces*, 73, 155-73.
- Fenigstein, A., M.F. Scheier, and A.H. Buss(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Fulk, J., Schimitz, J., and Stainfield, C.W(1990). A social influence model of technology use. In J. Fulk and C. Steinfield(eds.), *Organization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 Gibbs, J.J. and Giever, D.(1995). Self-control and its manifest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an empirical test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2, 231-5.
- Gottfredson, M. and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rasmick, H., Tittle, C.R. Bursik, Jr. R. and Arneklev, B.J.(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5-29.
- Heimer, K.(1997). Socioeconomic status, subcultural definitions, and violent delinquency. *Social Forces*, 75, 799-833.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iesler, S., Siegel, J. and McGuire, T.W.(1984). Social psychological aspects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merican Psychologist*, 39, 1123-34.
- Lea, M., O'Shea, T., Fung, P. and Spears, R.(1992). Flaming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M. Lea(ed), *Context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Matheson, K. and Zanna, M.P.(1988). The impact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on self-awaren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 221-233.
- Matsueda, R.L.(1982). Testing control theory and differential associations: a causal modeling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489-504.
- Paternoster, R., Saltzman, L., Chiricos, T.G., and Waldo, G.P.(1983). Perceived risk and social control: do sanctions really deter? *Law and Society Review*, 17, 457-479.
- Patterson, G.(1982). *Coercive Family Process: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OR: Castalia.

- Postmes, T. and Spears, R.(1998). Deindividuation and anti-normative behavior: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02, 238-59.
- Prentice-Dunn, S. and Rogers, R.W..(1982).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self-awareness on deindividu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503-13.
- Reicher, S.D., Spears, R. and Postmes, T.(1995). A social identity model of deindividuation phenomena. In W. Stroebe and M. Hewstone(ed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vol 6. Chichester: Wiley.
- Scheff, T.J.(1988). Shame and conformity: the deference/emotion syste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3, 395-406.
- Short, J.A., Williams, E. and Christie, B.(1976). *The Social Psychology of Telecommunication*. Chichester: John Wiley.
- Steel, G., Woods, D., Finkel, R., Crispin, M., Stallman, R., and Goodfell, G.(1983). *The Hacker Dictionary*. New York: Haper and Row.
- Sproull, L. and Kiesler, S.(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 1492-1512.
- Thomas, C. and Bishop, D.(1984). The effect of formal and informal sanctions on delinquency: a longitudinal comparison of labeling and deterrence theori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5, 1222-1245.

- Thompsen, P.A.(1996). Whats fueling the flames in cyberspace? a social influence model. In S. Lance, R. Jacobson, and S.B. Gibson(eds), Communications and Cyberspace. New Jersey: Hampton Press.
- Tittle, C.R.(1980). Sanctions and Social Deviance: The Question of Deterrence. New York: Praeger.
- Wicklund, R.A.(1975). Objective Self-Awareness.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8), L. Berkowitz(ed). New York: Academic Press.
- Widom, C.S.(1989). Child abuse, neglect, and violent criminal behavior. Criminology 33, 359-87.
- Zimbardo, P.G.(1969).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In W.J. Arnold & D. Levine(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부 록

청소년 언어폭력에 관한 조사

부
록

<부록>

청소년 언어폭력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지원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좀 더 나은 환경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은 학문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일체 공개하지 않고 개인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실 필요가 없으며 다만 솔직하게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성의있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문의처 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
 820-0496

* 여러분의 부모님과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번호에 O표를 해 주세요.

	전혀 아니다	그저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1)	(2)	(3)	(4) (5)
부모님은 나에게 무관심하다	(1)	(2)	(3)	(4) (5)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하신다	(1)	(2)	(3)	(4) (5)
부모님은 나에게 손찌검을 하신다	(1)	(2)	(3)	(4) (5)
부모님은 나를 혼내실 때 고향을 지르고 욕을 하신다	(1)	(2)	(3)	(4) (5)
부모님은 나를 몽둥이로 때리신다	(1)	(2)	(3)	(4) (5)
나는 부모님께 만족한다	(1)	(2)	(3)	(4) (5)
나는 부모님이 좋다	(1)	(2)	(3)	(4) (5)

*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혀 아니다	그저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종종 재미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나는 안전한 것보다 스릴있고 신나는 모험이 더 좋다	(1)	(2)	(3)	(4) (5)
나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는 생각않고 무엇이든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1)	(2)	(3)	(4) (5)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나는 무슨일을 할 때 계획없이 되는대로 한다	(1)	(2)	(3)	(4) (5)
나는 기분내키는대로 행동한다	(1)	(2)	(3)	(4) (5)
나는 복잡한 일은 딱 질색이다	(1)	(2)	(3)	(4) (5)
나는 뭐든지 내 위주로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무모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남을 때리는 것은 나쁜 행동이다 (1) (2) (3) (4) (5)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청소년비행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친구가 있다

(1) 없다 (2) 1명 (3) 2-3명 (4) 4-6명 (5) 7명 이상

*** 여러분의 인터넷게시판이나 채팅, 토론방에서의 경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혀 그저 매우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인터넷게시판, 채팅이나 대화, 토론에서

주로 나는 내 이름을 사실대로

밝힌다 (1) (2) (3) (4) (5)

내가 사용하는 아이디로는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1) (2) (3) (4) (5)

나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

가에 신경을 쓴다 (1) (2) (3) (4) (5)

상대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많이 생각한다 (1) (2) (3) (4) (5)

나는 남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한다 (1) (2) (3) (4) (5)

	전혀 아니다	그저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상대방의 나에게 대한 평가에 민감한 편이다	(1)	(2)	(3)	(4)	(5)
나는 내 주관과 생각대로 말한다	(1)	(2)	(3)	(4)	(5)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많이 생각하는 편이다	(1)	(2)	(3)	(4)	(5)
나는 나 자신을 알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나는 내안의 느낌과 감정이 무언지 신경을 쓴다	(1)	(2)	(3)	(4)	(5)
나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게 된다	(1)	(2)	(3)	(4)	(5)
나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다	(1)	(2)	(3)	(4)	(5)
충동적으로 말하게 된다	(1)	(2)	(3)	(4)	(5)
나는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	(2)	(3)	(4)	(5)
기분 나빠 화가 나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다음 행동은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저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허위정보/유언비어 유포.....	(1)	(2)	(3)	(4) (5)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비방.....	(1)	(2)	(3)	(4) (5)
음란대화 성희롱.....	(1)	(2)	(3)	(4) (5)

*** 여러분이 아래의 행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 행동으로 여러분이
발각되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저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허위정보/유언비어 유포.....	(1)	(2)	(3)	(4) (5)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비방.....	(1)	(2)	(3)	(4) (5)
음란대화 성희롱.....	(1)	(2)	(3)	(4) (5)

*** 다음을 할 때 이 행동으로 상대 사람들의 피해는 클 것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그저 아니다	그저 그렇다	매우 그렇다
허위정보/유언비어 유포.....	(1)	(2)	(3)	(4) (5)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비방..... (1) (2) (3) (4) (5)

음란대화 성희롱..... (1) (2) (3) (4) (5)

*** 다음의 행동을 실제로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지난 1년간 몇 회 했습니까?**

	없다	있다	지난1년간
허위정보/유언비어 유포.....	(1)	(2)	()회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비방.....	(1)	(2)	()회
음란대화 성희롱.....	(1)	(2)	()회

***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신의 성은 (1) 남 (2) 여

태어난 년도는 19 _ _

학년은 중 _ 학년, 고등 _학년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1)중졸 2)고졸 3)대졸이상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1)중졸 2)고졸 3)대졸이상

가족의 대체적인 월수입은

1) 50만원이하 2)51-100만원 3)101-150만원 4)151-200만원

5)201-250만원 6)251-300만원 7)301-350만원 8)351-400만원

9)그 이상

----- 수고하셨습니다 -----

【 연구요약 】

정보화의 진전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생활의 장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 역기능의 하나로 사이버공간상에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우려도 높다. 그 중 다른 여러 유형보다도 우리는 사이버공간에서 난무하는 욕설, 비방, 심지어 위협에 이르는 언어폭력을 많이 목격하게 된다.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언어폭력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려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흔히들 그 원인은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때문이라고 언급되어진다.

이 연구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상황이 과연 청소년들의 언어폭력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경험연구를 통해 살펴 보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익명의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 사이버 언어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몰개성화이론, 사회실재감 및 사회단서 부족 이론, 자아의식이론 등 기존 주요 이론과 논의들을 통해 살펴보고 하며, 이 논의들을 바탕으로 익명상황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공적 자아의식과 사적 자아의식의 감소, 언어폭력의 용인태도, 상황충동성 증가, 상대인지 및 상대피해인지의 약화, 그리고 처벌인지의 감소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매개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이 연구는 익명성의 영향력과 아울러 기존 비행연구에서 강조되었던 요인들, 예컨대 가정환경요인, 비행친구와의 접촉, 자기통제력 등의 영향력을 상호 비교하면서 어떠한 요인이 보다 중요한 원인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한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상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익명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언어폭력을 더 저지르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익명성의 영향력은 다른 매개변인들을 고려했음에도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그 변인들에 의해 크게 매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는 매개요인으로 상정한 일부 변인들의 사이버 언어폭력에 대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영향력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채팅이나 게시판에서 순간적으로 경험하는 상황적 충동경향의 영향력은 매우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언어폭력에 대해 갖는 허용적 태도가 사이버 언어폭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이버상에서 상대를 덜 의식하는 청소년이, 그리고 상대의 피해를 덜 인지하는 청소년이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익명성이외의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면 비행친구와의 접촉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익명성과 상관없이도 비행친구와 사귀는 아이들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자기통제력의 영향력도 비행친구와의 접촉보다는 그 영향력이 작았지만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통제력이 낮고 충동적인 아이들이 언어폭력을 더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익명상황보다 크게 나타나 사이버공간상의 언어폭력은 익명의 상황이외에 행위자들의 사회, 개인적인 요인으로서 비행친구와의 접촉이라든가, 낮은 자기통제력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애정이나 부모의 강압적 양육 같은 가정요인이나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이 필요충분조건이 되어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익명성과 부모애정, 부모의 강압적 양육, 비행친구와의 접촉, 폭력용인태도, 그리고 자기통제력간의 상호작용효과의 영향력은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예측을 지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익명성과 다른 요인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사이버상의 언어폭력을 설명할 뿐이며, 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이버 언어폭력을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익명의 상황은 분명 청소년들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을 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혹자는 그러한 이유로 실명제 방안을 거론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명제 방안은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보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건설적인 의견의 개진이나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익명의 상황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익명의 상황과 연관되는 대책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언어폭력이나 다른 범죄의 위험 때문에 실명제로 전환하기에는 여러 부작용의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익명성의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적절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며, 그보다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교육, 문화운동, 그리고 주위의 세심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본다.